

Dubai유 평균 수입가격 37-40달러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2005년 하락 가능성 무 ... OPEC 증산도 의문

중동산 두바이(Dubai)유 가격에 대한 정부의 2005년 연평균 전망치가 배럴당 37-4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3월17일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각종 악재로 당분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두바이유에 대한 2005년 연평균 전망치를 배럴당 37-40달러로 예상했다.

협의회는 연초 두바이유 평균가격을 30달러대 초반으로 전망했었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총회에서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생산쿼터를 하루 50만배럴 확대키로 했지만 산유국의 수출물량 선적 일정상 5월1일 이전에 실제 증산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국제유가 강세 원인으로는 ▲석유수급 여건이 악화된 점 ▲석유 생산능력 및 소비국 정제능력 제약 ▲금융시장 국제투기자본의 원유 등 실물시장 유입 ▲달러화 약세에 따른 OPEC의 실질구매력 보전 차원의 고유가정책 추진 등이 제시됐다.

회의에는 산업자원부,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화학저널 2003/03/18>